

▶ 의생활·주생활

현대한복의 장식성에 관한 연구

-1986년~1997년을 중심으로-

이 현 숙*(한복나라)

한복은 긴 역사를 가지고 계승 발전하면서 1960년 전후까지 일상복으로 입었으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서서히 한복이 일상복에서 예복이 되었고, 한복은 특별한 날 입는 옷으로 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는 색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와 맞물려 1980년대 후반에 국제적인 행사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 한복의 수요가 점점 늘어났다. 한복의 안정기로 보았던 1986년~1995년은 세계각국의 패션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시기이며 높아진 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업체에서는 현대적인 한복의 소재, 다양한 장식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행의 싸이클(cycle)에 의해 재현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현상을 분석하여 현대 한복연구와 디자인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연구방법은 인터뷰와 월간 '아름다운 우리 옷'의 전통한복 화보를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자료가 부족했던 1986~1988년까지의 한복장식성 조사를 인터뷰로 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식 방법은 금박이나 자수에서 염색과 그림으로 바뀌었다.

소재는 사철 개끼소재가 주를 이루었고, 양단, 명주, 수직 실크가 성인남자 전통한복과 두루마기 소재로 쓰였다. 사철 개끼의 특징은 여름용과 겨울용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전통 사철 개끼소재인 갑사, 숙고사, 진주사, 향라 등이 함께 쓰였다.

장식성에 색상의 배합도 포함하였다. 한복은 염색, 자수, 봉제 방법이 외에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어 장식적인 효과를 내었기 때문에 색상배합을 장식성에 포함하였다. 1986~1990년까지는 저고리, 치마에 특별하게 부분적인 (깃, 고름, 끝동, 걸막이, 치마의 스란등)이색배합을 많이 하지 않았고, 저고리, 치마 동색이나 저고리 치마가 각각 다른 이색배합만을 입었다가 1991년 이후 점점 그라데이션염 비율이 높아지면서 1993년까지는 깃, 고름 이색과 저고리 치마가 각각 다른 이색배합을 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저고리, 치마에 이색배합이 여러 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995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봉제 기법(바이어스 선 끼우기, 색동, 조각 잇기, 잣물림, 자수, 애플리케 장식등), 무늬를 내기 위한 염색 기법은 1989년 파라핀염, 필 수화는 1990년, 안료수화는 1992년에 높은 빈도를 보였고 1992~1993년에는 스크린 프린팅을 많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조사 되었다.